

# 일본 원폭 80년...평화 호소에도 핵폐기 난망

히로시마·나가사키 평화기념식  
역대 최대 국가·지역 참가할 듯  
이시바 총리 인사말 내용 주목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80년이 됐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6일, 나가사키는 사흘 후인 8월9일 피폭했고 도시는 폐허처럼 변했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당시 원폭 투하로 인해 불에 타거나 파괴된 건물 수는 히로시마 5만1천여채, 나가사키 1만3천여채로 추정된다. 건물 피해보다 치명적인 것은 인명 피해였다. 1945년 12월까지 히로시마에서는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4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두 도시 합쳐 사망자 약 4만명, 생존자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각 도시의 원폭 투하 날짜에 맞춰 피폭 80주년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히로시마 기념식에는 120개 국가·지역, 나가사키 행사에는 101개 국가·지역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역대 최대라고 일본 언론

이 전했다. 히로시마시는 이날 개최되는 평화 기념식에 서고(做) 쓰보이 스나오씨가 강조했던 문구인 '네버 기브 업'(포기하지 마)을 언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교'(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대표위원을 지낸 그는 평생을 핵무기 폐기 운동에 헌신했다. 아울러 히로시마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 등을 계기로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거주 피폭자를 포함한 외국인 피폭자 약 10명이 초대됐고,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이들과 면담할 방침이다. 스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은 오는 9일 열리는 기념식에서 '평화선언'을 통해 세계 각지의 분쟁을 즉시 멈추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두 도시의 평화 기념식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 지난해 10월 취임한 그가 첫 인사말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은 1947년 이후 역대 총리의 히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시마 평화 기념식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를 언급한 사례가 극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 총리들이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일 게재한 '핵무기 폐기로부터의 역행을 허용하지 말라' 제하 사실에서 일본

은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규범을 만들고 핵무기 폐기로 이어질 외교를 해야 한다며 "한국 등과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피폭 이후 도시 부흥과 함께 원폭 참상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히로시마는 원폭 투하 지점에서 160m 떨어진 '원폭 돔'을 남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

다. 외벽이 대부분 허물어지고 돔의 양상한 철골 구조물만 남은 이 건물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상징하는 유산이었다. 원폭 돔 주변에는 원폭으로 희생된 사망자의 혼을 달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평화기념공원과 피폭자 유품 등을 전시한 평화기념자료관이 있다. 공원과 자료관은 전후 일본 건축을 대표하는 단게 겐조가 설계했다. 나가사키에서 원폭의 위력을 보여주는 건물은 우라카미성당 옛 종루(鐘樓)다. 피폭지에서 500m 거리에 있던 천주당은 1958년 해체 후 재건됐는데, 옛 종루가 인근에 쓰러진 채로 남아 있다. 원폭 관련 건물 보존과 도시 정비는 사실상 무리였지만, 원폭을 경험한 피폭자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살아 있는 피폭자 수는 9만9천130명이다. 1980년에는 37만여명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해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피폭자 중 일부는 원폭이 투하됐을 당시 경험과 전쟁 공포를 알리는 증언 활동을 해 왔다. 히단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간마을 기습 홍수 4명 사망·100여명 실종

전시 태세 수준 구조 인원 투입  
모디 총리 "지원 자원 총동원"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간마을에서 갑자기 발생한 홍수로 4명이 숨지고 100명가량이 실종됐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히말라야 인근의 다팔리 마을에서 흉탄물을 동반한 급류가 협곡을 따라 저지대로 쏟아지면서 홍수가 일어났다. 급류는 좁은 산간 계곡을 휩쓸고 내려오면서 평지에 있는 마을을 덮쳤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실종됐다. 산자이 세스 국방부 차관은 현지 언론에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보고받았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도 현지 언론은 흉탄물을 동반한 강한 급류가 저층 주택 단지를 통째로 덮치는 영상을 보도했다. 일부 주민들은 홍수를 피해 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푸슈카르 싱 다미 우타라칸드주 총리는 구조



홍수 일어난 인도 히말라야 산간 마을. /AP=연합뉴스

인원을 전시 태세 수준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인도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마을이 진흙에 잠기고 집 지붕까지 흉탄물이 덮친 흔적이 보였다.

우타라칸드주 재난 대응 부대 지휘관인 아르판 야두반시는 일부 지역에서 진흙이 15m 높기로 쌓여 건물을 완전히 뒤덮었다고 설명했다.

인도군 관계자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고립된 사람들을 찾고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FP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발'로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기상청은 적색경보를 발령한 우타라칸드주 일부 지역 강우량이 매우 강한 수준인 21cm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6-9월 몬순(monsoon) 우기에 심한 홍수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홍수 빈도가 늘고 피해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 기후 활동가인 하르지트 싱은 "기후 변화는 지구의 수분 순환을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을 막는 정체가 자연의 방어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핵 가진 北 용인 가능성" 美 전직관리, 안보세미나서 전망

이르면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는 판단을 밝힌 조지프 전 차관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 조지프 전 차관은 "그들이 (핵탄두) 200기를 보유하건, 400기를 보유하건 간에 우리는 10배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다만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 사업자대출: 정액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